

中國 殷商代 醫療文化特色 小考

- 甲骨文을 중심으로

金英鉉*

<目 次>

1. 서론
2. 殷商代 질병에 대한 인식
3. 殷商代 질병의 종류
4. 殷商代 질병의 치료
 - 1) 질병의 원인
 - 2) 질병 치료 방법
5. 결론

1. 서론

건강을 지키는 풍습의 전승은 인류사회가 긴 발전의 세월을 통하여 가능하다. 생산투쟁과 생활실현의 인식이 축적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체건강에 유리한 조건을 찾게 됨으로 해서 질병침해가 감소하고 체질과 수명연장을 생각하는 건강 풍습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건강을 위한 다 방면의 내용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 고대 은상대인들 역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였다.

갑골문은 중국 은상시기의 상형문자로 3천여 년 전의 중국 상고시기 중국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 의학 관념에 대한 전반적인 실상을 반영한다. 중국 은상대인들 역시 질병에 대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서 점을 쳐 질병의 원인과 치유

* 성균관대 중문과 박사수료

여부를 물었다. 그들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그 치료의 방법을 갑골문으로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필자는《甲骨文合集》,《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등 다수에 수록된 질병에 관한 복사 예문을 종합하고, 의학 관련 자료를 보충삼아 질병과 관련된 복사를 통해 은상대인들의 의료 문화적 특색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갑골문에 반영된 질병에 대한 기록은 시대적인 한계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문헌 자료보다 상세하고 풍부하며 신빙성이 가장 높다. 16만 여 편에 달하는 갑골문의 내용을 근거로 은상대인들의 질병에 관한 내용 등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아가 질병의 원인이 각각 다른 것에 기인하여 내과, 외과의 개념을 구분하는 지혜도 엿보였다. 3천여 년 전 은상대인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을 직접 기록한 복사 자료를 통한 중국 상고시대의 의학문화수준의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2. 殷商代 질병에 대한 인식

은상시대는 중국의 역사상 가장 미신을 신봉하였던 시대로 왕의 통치로 모든 결정은 점복을 통해 계시를 받아 행해졌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그들은 점을 쳐 질병의 원인과 그 치료방법의 여부를 물었다. 갑골문자는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 그려낸 문자이다. 그들이 질병에 관하여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하였는지는 갑골 문자를 통해 알 수 있다.

1) 갑골문자 ‘疾’ ‘病’ ‘醫’

갑골문에 나타난 ‘疾’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로 병자가 침상위에 누워 온 몸에 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의 𠄎이다. 갑골문 ‘疾’의 또 다른 글자는 정면으로 서 있는 사람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박혀있는 모양의 𠄎이다. 즉 외상을 입은

모습이다. 王國維는《觀堂林集·毛公鼎銘考釋》에서 ‘疾’자에 관하여 “사람의 겨드랑이에 화살을 맞은 형상으로 ‘疾’의 최초 의미는 ‘箭傷’이며, 고대는 전쟁이 많은 관계로 화살은 자주 사용되는 무기중의 하나이다. 전쟁 중의 사람들은 항상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疾’의 최초 의미를 ‘箭傷’ 혹은 ‘傷’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시 ‘病’으로 인신되어 ‘疾病’이라는 말이 생겼다”¹⁾라고 하였다. ‘疾’의 구성형체로 알 수 있듯 고대인들이 보기에 ‘箭’은 일종의 상처를 초래하는 물건으로 이것 역시 고대인들의 ‘疾’자를 만드는 심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① 貞：其有疾。(合 3784)

문습니다：병이 생길까요?

② 貞：婦好有疾佳有害。(合 13714正)

문습니다：婦好가 병에 걸렸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③ 丁亥卜，貞：子漁其有疾。(合 13722)

정해일에 점을 치고 문습니다：子漁에게 병이 생길까요?

④ 貞：子弗疾。有疾。(合 41023)

문습니다：子에게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병이 생길 것이다.

⑤ 丙午，貞：多臣亡疾。(合 22258)

병오일에 문습니다：多臣에게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위의 복사는 상왕 및 왕비, 자식, 신하의 병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으로 ‘疾’자는 병의 질환을 광범위하게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기록된 구체적인 병의 증세는 통상적으로 ‘疾某’라고 한다. 이것은 각종 병에 대한 증세, 발병부위 혹은 병의 식별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당시사회는 이미 질환의 명칭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갑골문에 나타난 ‘疾’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침상에 누워 온 몸에 땀이나 피를 흘리고 있는 모양과 정면으로 서있는 사람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박혀

1) “疾之本字(指甲骨文的‘疾’字)，象人亦(腋)下箸(着)矢形。古多戰事，人箸矢則疾矣。“可知疾”的初始意思是‘箭傷’。古代戰爭很多，而弓箭是常用的武器之一，在戰爭中的人們經常被箭射傷，所以古人以爲疾的初始意義是‘箭傷’或‘傷’，由此再引申爲‘病’，疾病。”

吳東平，〈箭射中了人-‘疾’，病二字趣釋〉，《漢字的故事》2006，120쪽.

있는 모양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현은 각기 다른 병의 원인을 표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疾’은 보이지 않는 內科적인 요소에 의한 질병이고, ‘病’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外科적 질병을 말한다. ‘疾’과 ‘病’은 모두 은상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질병의 형상으로 이 두 글자가 의미하는 ‘疒’과 ‘矢’가 합쳐서 오늘날의 ‘病’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갑골문 ‘醫’(醫)자는 귀중 했던 침을 상자 속에 소중하게 담아둔 모양이다. 후대의 ‘醫’자는 ‘醫’와 ‘殳’와 ‘酉’로 이루어졌다. ‘殳’(殳)는 손에 치료 도구를 든 모양이며, ‘酉’(酉)는 술항아리 모양인데 술로 마취나 소독, 약효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²⁾ 이 세 글자를 합성한 ‘醫’자는 ‘질병을 치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 殷商代 질병의 종류

갑골문에 보이는 질환의 종류는 매우 많다.³⁾ 복사 중에는 신체 각 부위별로 貞人이 묻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그들은 疾病을 매우 상세하게 분류했고, 병의 증상에 따라 점을 치는 방법도 달리 하는 등, 질병 인식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질병의 종류를 주로 발병한 신체 부위에 따라 구별하였으므로 본고 또한 신체를 각 부위별로 나누어 그 부위에 발생한 질환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머리

① 甲申卜, 出貞: 王疾首, 亡延。(后下 7.13)

2) 양동숙, 《갑골문해독》 2005, 849쪽.

3) 胡厚宣은〈殷人疾病考〉에서 은상대 갑골문에 나타난 질병의 종류를 현대 의학 분과 개념인 16종류로 나누었으며, 孟世凱는《殷墟甲骨文簡述》에서 신체부위별 13종류로 분류하였다. 李宗焄은〈從甲骨文看商代的疾病與醫療〉에서 20종류로 분류하였는데 필자는 李宗焄의 분류법을 참고하되 앞서 발표된 殷商代 질병 자료들과 여러 학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충한다.

갑신일에 점을 치고 출이 묻습니다 : 왕께서 머리에 병이 생겼는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 ② 庚辰卜, 王 : 弗疾朕天。(合 20975)

경진일에 점을 치고 왕이 묻습니다 : 짐의 머리에 병이 생겼는데 심
하지 않을까요?

- ③ 旬有崇, 王疾首, 中日彗。(合 13613)

앞으로 열흘 동안 재앙이 있을까요? 왕의 머리에 병이 생겼는데 오
늘 정오쯤 증세가 나아질까요?

‘疾首’는 두통을 가리킨다. ②의 ‘天’()은 정면으로 서 있는 사람의 머리를 두드
러지게 부각시킨 모양으로 ‘머리’라는 뜻으로 인식되었다. 《說文》: “天, 頂也”라 하
여 머리 즉 정수리를 뜻 한다.⁴⁾ ③의 ‘中日’은《黃帝內經素問·藏器法時論第二十
二》: “心病者, 日中慧, 夜半甚, 平旦靜”(心이 병든 자는 正午에는 병정이 가벼
워지고, 밤중에는 가중되며, 새벽녘에는 안정된다)라고 하여 복사의 ‘日中慧’와 같
은 뜻으로 보여 진다. 시간적으로 ‘正午’에 해당한다.

2) 눈

- ① 貞 : 王弗疾目。(合 165)

묻습니다 : 왕의 눈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 ② 貞 : 不佳日憂。(合 13622)

묻습니다 : 눈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 ③疾盲。(合 13629)

눈이 멀까요?

‘疾目’, ‘目憂’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③의 ‘盲’()은 ‘民’자이다.⁵⁾ 郭沫若是 ‘民’
은 ‘盂’과 훈이 통하며 날이 뾰족한 물건으로 눈이 찢린 모양⁶⁾이라고 하였다. 즉
‘疾盲’은 눈이 뾰족한 물건에 찢려 눈이 먼 질환을 의미한다.

4) 양동숙, 《갑골문해독》 2005, 847쪽.

5)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1965, 3715~3717쪽.

6) 郭沫若, 《甲骨文字研究》 1952, 33쪽.

3) 귀

- ① 貞：疾耳，佳有害。(合 13630)
 문 습니다：귀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 ② 貞：疾耳，御于……。(合 13632正)
 문 습니다：귀에 병이 생겼는데 ...에게 御祭⁷⁾를 드려야 할까요?
- ③ 己未卜，佳父庚害耳。(合 21377)
 기미일에 점을 칩니다：父庚의 재앙이 있어 귀에 병이 생긴 걸까요?
- ④ 貞：王聽不佳憂。(合 11018正)
 문 습니다：왕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 ⑤ 庚戌卜，朕耳鳴，有御于祖庚羊百有用，五十八有母用今日。(合 22099)
 경술일에 점을 칩니다：짐의 귀가 울리는데 ‘祖庚’에게 양 158마리를 올려 御祭를 드릴까요?

‘疾耳’는 일반적으로 귀에 생긴 병으로, 귓속에 염증이 생겨 가렵거나 아픈 증상을 말한다. ④의 ‘聽憂’는 청각에 장애가 있어 들을 수 없는 증상을 말한다.《黃帝內經》에 ‘耳疾’이란 질환이 있다. 이것은 귀안에 고름, 귀지가 있는 것을 말하며 ‘經氣厥逆’ 혹은 혈 부족의 원인으로 청각장애를 일으켜 귀가 먹는 것으로 이명 증상과는 다른 증상으로 보인다.⁸⁾ 이처럼 갑골문에 보이는 ‘疾耳’, ‘听憂’, ‘听孽’, ‘耳鳴’의 구분은 당시 사람들이 귀 질환을 증상별로 식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코

- ① 貞：有疾自，不佳有害。(合 11506正)
 문 습니다：코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없을까요?
- ② 貞：婦好息佳出疾。(合 13633)
 문 습니다：婦好에게 콧물(코막힘)이 생길까요?

7) ‘御祭’는 어떤 재앙이나 질병을 피하게 위해 드리는 방어제사(防禦祭祀)이다.

孫叔微, 〈甲骨卜辭에 나타난 殷商代 祭祀의 種類〉, 《中國學報》1988, 28卷 78쪽.

8) 傅維康, 《黃帝內經導讀》1988, 175-176쪽.

‘疾自’는 코에 생기는 질환이다. ‘自’(𠂔)는 갑골문에 코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疾自’는《說文》: “自, 鼻也, 象鼻形, 謂鼻疾”이라 하여, 사실상 ‘鼻’의 초문이다.

②의 갑골문 ‘息’(𠂔)는 콧구멍에 콧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出疾’라고 하며, 아마 감기로 인하여 콧물을 흘린다는 의미이거나 코 막힘, 호흡기 감염의 만성질환으로 추정된다.

5) 입

① 貞 : 疾口。(合 13642)

문습니다 : 입에 병이 생길까요?

② 貞 : 疾口, 御于妣甲。(合 11460正甲)

문습니다 : 입에 생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妣甲에게 御祭를 올릴까요?

③ 辛丑卜, 亡口。(合 22258)

신축일에 점을 치고 문습니다 : 입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④ 癸巳卜, 貞 : 婦姬亡至口。(合 22248、22249)

계사일에 점을 치고 문습니다 : 婦姬의 입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疾口’는 입술 혹은 입안에 생기는 질병이다. 입술에 종기가 생기거나 구강에 염증, 궤양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④의 ‘至口’는 구강이 부어서 생기는 통증이다.⁹⁾ 이상의 복사는 모두 입가에 생긴 질환이며 ‘亡口’, ‘亡疾’와 ‘亡至口’는 같은 부위로 의미는 비슷하다.

6) 혀

① 甲辰卜, 古貞 : 疾舌, 隹有害。(合 13634正)

갑진일에 점을 치고 정인 古가 문습니다 : 혀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② 貞 : 疾舌, 求于妣庚。(合 13635)

9) 溫少峰, 袁庭棟, 《殷墟卜辭研究-科學技術篇》1983, 310쪽.

문습니다 : 혀에 병이 생겼는데 妣庚에게 求祭¹⁰⁾를 올려야 할까요?

③ 貞 : 王舌疾, 隹有由。(合 13641)

문습니다 : 왕의 혀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④其。(合 18390正)

입안에 병이 생겼는데...

‘疾舌’은 혀에 생기는 질환이다. 혀에 염증이 생기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수포 종류의 증상을 말한다. ④의 자에 대해 李宗焄은 혀의 질환이라 하였다.¹¹⁾ 위의 예문 ‘息’()자는 콧구멍에 콧물이 흐르는 모양에서 코에 대한 질병으로 혹은 아래 (8)치과 질환에 보이는 자는 치아 사이로 벌레가 들어간 형상에서 치아 질병으로 간주하듯이 자 역시 모양으로 보아 혀에 발생된 질환으로 수포나 염증으로 추정된다.

7) 목구멍

① 貞 : 有疾言, 隹害。(合 440正)

문습니다 : 목구멍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② 貞 : 言其有疾。(合 13637正)

문습니다 : 목구멍에 병이 생길까요?

갑골문의 ‘告’, ‘舌’, ‘𠂔’은 同源字들이다. 갑골문의 ‘言’자는 ‘舌’자에 한 획을 첨가하여 혀에서 소리는 내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이다.¹²⁾ ‘疾言’에 대하여 于省吾는 목구멍에 생기는 질환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못하는 증상이며 ‘疾言’은 ‘疾言’이며 목이 쉬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³⁾ 또한 嚴一萍은 병이 있어 말을 못

10) ‘求’의 갑골문형은 자형으로 곡물을 묘사한 來와 비슷한 형체가 있어 곡물을 받쳐 소망을 기원하는 제사로 보았다.

양동숙, 《갑골문해독》 2005, 327쪽.

11) 饒宗頤, 《巴黎所見甲骨集》 1956, 33쪽.

12) 徐中舒, 《甲骨文字典》 2006, 221-222쪽.

13)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1979, 87쪽.

하는 언어장애의 ‘疾言’¹⁴⁾이라고 하였다. ‘言’과 ‘音’ 두 글자는 통용되며, ‘言’의 독음은 ‘音’이다. ‘疾言’은 목구멍에 생긴 병을 말한다. 목이 쉬어 심지어 소리를 낼 수 없는 증상을 말한다.《黃帝內經·靈樞·憂悲無言》에 “갑자기 음성이 안 나오는 사람은 정신적 충동에 의해서 양기의 순환이 나빠진데 기인 한다”¹⁵⁾와《黃帝內經·靈樞·寒熱病》:“暴暗氣鞭”을 인용하여 추측하건데 아마도 인후와 혀의 지방이 강하게 굳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증상으로 갑골문 ‘疾言’은 역시 아마도 이런 이유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8) 치아

- ① 壬戌卜, 亘貞 : 有疾齒, 佳有害。(合 13644)
壬戌일 점을 치고 정인 亘이 묻습니다 : 치아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 ② 疾齒, 不佳有害。(合 13647正)
치아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없을까요?
- ③ 婦好弗疾齒。(合 773甲)
婦好의 치아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 ④ 貞 : 疾齒, 不佳咎……。(合 13648正)
묻습니다 : 치아에 병이 생겼는데 말을 할 수 없을까요?
- ⑤ 甲申卜 殷貞 : 不佳[父]乙[降]。 (合 6664正)
갑신일에 점을 치고 殷이 묻습니다 : 치아에 병이 생겼는데 父乙에게 降祭¹⁶⁾를 올리지 않아도 될까요?
- ⑥ 貞 : 勿于甲御婦。 (合 13663)
묻습니다 : 婦에게 충치가 생겼는데 甲에게 御祭를 지내지 않아도 될까요?
- ⑦ 貞 : 有□疾齒, 不佳蟲。(合 13664)
묻습니다 : 치아에 병이 생겼는데 충치가 생긴 것일까요?

14) 嚴一萍, 《殷契徵瑩》1951, 41쪽.

15) “人卒然无音者, 寒气客于脈, 則脈不能發, 發不能下至, 其開闔不致, 故无”
주춘재, 《黃帝內經·靈樞》2004, 212-213쪽.

16) ‘내리다’, ‘내려주다’의 의미로 신령이 내려와 받는 제사를 나타낸다.
양동숙, 《갑골문해독》2005, 333쪽.

⑧ 貞：有疾, 佳害。(合 13645正)

문습니다：치아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疾齒’는 치아 질환이다. ④의 ‘喃’은 재잘거리며 수다 떠는 것을 의미한다. ⑤의 에 대해 李宗焄은 ‘牙齒’의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빼는 모습이거나 혹은 치아통증으로 이가 빠지는 지경에 이르러 손으로 그것을 빼는 것이다¹⁷⁾라고 하였다. ⑥의  (齲)자는 두 개의 치아 사이로 벌레가 들어간 형상이다. 즉 충치를 말 한다.¹⁸⁾ ⑦의 ‘蟲’는 이가 충치로 인해 치아의 단단한 조직이 잠식당한 것이다. ⑧의 자는 글자의 형상으로 보아 치아가 밖으로 뒤집어지거나 혹은 치아가 돌출되거나 혹은 치아가 너무 많아서 불편을 겪는 질환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치아 관련 복사를 통해 은상대인들의 치아 질환이 비교적 다양하고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추측 해 보건데, 은상대인들은 당시 칫솔질 및 기타 구강청결수단에 관련된 것들이 없었던 까닭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9) 복부

① 癸酉卜, 爭貞：王腹不安, 亡延。(續 5.6.1)

계유일에 점을 치고 爭이 문습니다：왕의 배가 불편한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② 貞：王疾身, 惟妣己害。(合 822正)

문습니다：왕께서 배가 아프신데 妣己의 재앙이 있는 걸까요?

③ 貞：疔, 其唯禍。(庫 1803)

문습니다：배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④ 貞：有疾身, 御于祖丁。(合 13713正)

문습니다：배에 병이 생겼는데 祖丁에게 饗祭를 드려야할까요?

⑤ 貞：勿于父乙告疾身。(合 13670)

문습니다：배에 병이 생겼는데 父乙에게 告祭¹⁹⁾를 드리지 않아도

17) 李宗焄, 〈從甲骨文看商代的疾病與醫療〉, 《中央研究院歷史語言所集刊》2001, 第72本 第2分, 352쪽.

18) 聞一多, 《釋齲》1982, 557-558쪽.

19) 神明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을 이르며 축원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될까요?

갑골문 ‘身’^㉑자는 유독 배를 강조한 모습이다. ①의 “腹不安”은 복부의 통증 보다는 음식의 영향으로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증상을 말한다. ③의 ‘疢’^㉒은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의 배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모습이다.《說文》：“疢，小腹病也”라 하고《王篇》：“疢，心腹疾也.”라고 하였다. ‘疾身’에 관하여 胡厚宣은 배에 생기는 질환이며²⁰⁾ 李孝定은《甲骨文字集釋》에서 ‘疾身’을 “임신으로 인한 질병”으로 해석하였는데²¹⁾, ‘疾身’의 대상이 ①②의 용례처럼 商王인 경우도 있으니, 본고에서는 胡厚宣의 의견에 동의하며 “복부의 질병”으로 해석하였다.

10) 팔

- ① 貞：王^㉓ 不其龍。(合 5532正)

문습니다：왕의 팔꿈치에 병이 생겼는데 치유될까요?

- ② 貞：中子^㉔ 疾，乎田于凡。(合 21565)

문습니다：中子の 팔꿈치에 병이 생겼는데 凡에 가서 사냥해도 될까요?

- ③ 貞：疾^㉕ 龍。(閣 13677)

문습니다：팔에 병이 생겼는데 치유가 될까요?

- ④ 乎니^㉖。(合 11018)

팔을 동여매 고정할까요?

李宗焜은^㉗ 疢을 ‘肘’로 해석하였는데, 팔의 굽어진 부위를 가리키는 형상이라고 하였다.²²⁾《說文》：“肘，臂節也”라 한 것처럼 ‘疾肘’는 팔꿈치 부분의 질환으로 관

孫叔微, 〈甲骨卜辭에 나타난 殷商代 祭祀의 種類〉, 《中國學報》1988, 28卷 26쪽.

20)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初集》1944, 426쪽.

21) 李孝定, 《甲骨文字集釋》1991, 2719-2720쪽.

22) 李宗焜, 〈從甲骨文看商代的疾病與醫療〉, 《中央研究院歷史語言所集刊》2001, 第72本 第2分, 357쪽.

절염이나 가려움, 부종 등의 질환으로 추정된다. ③④의 𠂔는 '臂'를 가리킨다. '니'자는 '糾'로 해석한다.

11) 유방

① 貞：御婦印乃(奶)執。(粹 1241)

문습니다 : 婦印의 젖이 막혀 나오지 않는데 御祭를 올릴까요?

갑골문 '乃'(𠂔)자는 婦女가 유방을 꺼낸 측면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奶'의 초문이다 '執'은 '塞'의 의미가 있다. ①의 '婦印'은 여자의 이름이다. 출산 후 젖이 막혀 아기의 모유수유에 영향이 있어 御祭를 올려 액운을 물리치려는 내용이다.

12) 엉덩이(둔부)

① □寅卜， 貞：𠂔其有疾。

貞：𠂔亡疾。(合 117)

□寅일에 점을 치고 문습니다 : 엉덩이에 병이 생길까요?

문습니다 : 엉덩이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갑골문 𠂔는 '臀'의 의미로 유독 엉덩이 부분을 강조한 형상이다. 이 복사는 엉덩이 부분의 질환을 말한다.

13) 무릎

① 貞：有疾𠂔，其……

貞：有疾𠂔，弗……。 (合 314)

문습니다 : 무릎에 병이 생겼는데...

문습니다 : 무릎에 병이 생겼는데.....하지 않을까요?

- ② 貞：勿于父乙告疾。(閣 13670)

문습니다：무릎에 병이 생겼는데 父乙에게 告祭를 올리지 말까요?

갑골문 ‘膝’(𠂔)자는 유독 무릎부분이 강조된 모습이다. ‘疾’은 무릎 질환을 말하며 주로 관절염이나 부종의 질환으로 추정된다.

14) 다리

- ① 貞：有疾疋，唯父乙害。(合 13695 正乙)

문습니다：다리에 병이 생겼는데 父乙의 재앙이 있는 걸까요?

- ② 貞：疾疋.....(閣 13694)

문습니다：다리에 병이 생겼는데....

- ③ 貞：疾疋龍。(合 13693)

문습니다：다리에 병이 생겼는데 치유될까요?

‘疋’자는 갑골문의 이며, 사람의 종아리 및 발의 형상을 본 뜬것이다.《說文》：“疋，足也。”라 하여 “모양이 마치 위는 비장, 아래는 발의 형상과 같다(上象腓腸，下從止)”라고 하였다. 갑골문에서 ‘疾疋’은 발과 다리에 생기는 질병을 의미한다.

15) 발가락

- ① 貞：有疾趾，隹黃尹害。(合 13682)

문습니다：발가락에 병이 생겼는데 黃尹이 재앙을 내린 걸까요?

- ② 貞：其止有疾。(合 13790正)

문습니다：발가락에 병이 생길까요?

- ③ 貞：疾止龍。(合 7537)

문습니다：발가락의 병이 치유될까요?

《釋名》：“趾，止也”라 하여 즉 ‘止’자는 ‘趾’이다. ‘疾止’는 발가락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주보이는 발의 질환 즉 무좀, 가려움증 등의 증상으로 추정

된다.

16) 뼈

- ① 貞：婦好骨大疾，延.....。(合 74)
 묻습니다：婦好의 뼈에 병이 생겼는데, 오래갈까요?
 ② 辛酉卜，女骨出... ..(乙 8898)
 신유일에 점을칩니다：女(딸)의 뼈에 병이 생길까요?
 ③ 貞：王骨異其疾，不龍。(乙 6815)
 묻습니다：왕의 뼈에 병이 생겼는데 낫지 않을까요?
 ④ 貞：王骨其雨疾。(合 12672)
 묻습니다：왕의 뼈에 병이 생길까요?

‘疾骨’은 뼈에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계통의 증상을 말한다. ①의 ‘骨大疾’은 뼈 관절이나 뼈 부분에 생기는 비교적 심한 증상을 말한다. ②③의 ‘骨出’ ‘骨異’는 뼈 관절의 이상 증상으로 오는 통증을 말한다. ④의 ‘骨雨疾’은 비 오는 날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골절로 보이는 질병의 복사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王狩敝...禽馬亦有墜”(合 11446)²³⁾의 용례에서 보듯이 당시 ‘牛車’, ‘馬車’는 전쟁이 빈번했던 은상시대의 운용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낙상사고가 빈번했고 그로 인한 골절 상해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

17) 유행병(전염병)

- ① 貞：有疾年其死。(合 526)
 묻습니다：돌림병이 도는데 죽음에 이를까요?
 ② 疾人，惟父乙害。(合 5480)
 전염병에 감염되었는데 父乙이 재앙을 내린 걸까요?
 ③ 甲子卜，殷貞：疾役疫不延。(合 13658正)
 갑자일에 점을 치고 殷이 묻습니다：전염병에 걸렸는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23) “왕이 敝에서 사냥을 했는데, 말에서 떨어졌다”

④ 貞：王疫。(合 5363)

문습니다：왕이 전염병에 걸렸을까요?

⑤ 貞：王禍其瘡。

貞：不佳虐。(閔 17946)

문습니다：왕이 재앙을 얻어 학질에 걸렸을까요?

문습니다：학질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⑥ 甲戌卜，貞：有虐秉棗。(明 105)

갑술일에 점을 치고 문습니다：학질에 걸렸는데 대추로 치료할까요?

《周禮·疾醫》에서 “사계절에는 다 유행하는 질병이 있으니, 봄에는 두통이 있고, 여름에는 가려움증이 있으며, 가을에는 학질이 있고, 겨울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다.”²⁴⁾라 하고, 《墨子·兼愛下》에는 “금년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에 걸려 죽어 도랑에 버려진 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²⁵⁾라 하였다. 즉 ①의 ‘疾年其死’는 그 해에 돌림병이 유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²⁶⁾ ②의 ‘疾人’은 유행병에 감염된 환자를 말한다. ⑤《周禮·天官·疾醫》에서 말했듯, 가을 날씨가 차갑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학질에 걸리기 쉬워졌음을 말한다. ⑥의 ‘秉棗’는 학질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18) 심장

① 貞：有疾心，隹有害。(乙 738)

문습니다：심장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② 庚卜，子心疾亡延。(花東 181)

庚일에 점을칩니다, 子의 심장에 병이 생겼는데 오래 가지 않을까요?

③ 壬辰卜，子心不吉，永。(花東 416)

임진일에 점을칩니다, 子의 심장에 병이 생겼는데 치유가 될까요?

24) “四時皆有癘疾，春時有疇首疾，夏時有痒疥疾，秋時有瘡寒疾，冬時有漱上氣疾”

25) “今歲有癘疫，萬民多有勤苦凍餓，轉死溝壑中者，既已衆矣”

26) 胡厚宣，《甲骨學商史論叢初集》1944, 416쪽.

‘疾心’은 心臟질환을 말한다. ‘疾心’에 대하여 양동숙²⁷⁾은 지나치게 마음 쓰거나 괴로움을 당하여 발생하는 ‘마음의 병’으로 해석하였으며, 陳世輝²⁸⁾ 역시 ‘정신방면의 질환’이라고 해석하였다. 필자는 위의 두 견해를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黃帝內經·靈樞》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심장이 손상된다(愁憂恐懼則傷心)”라고 하였다. 현대 의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장질환은 마음에서 오는 병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의 떨림이나 긴장, 공포에 의해 심장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 ③ 心不吉은 心胸의 감각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19) 감기

- ① 丁酉卜, 殷貞: 杞侯熱, 弗其禍風有疾。(后下 3715)
정유일에 점을 치고 殷이 묻습니다: 杞侯가 열이 있는데 감기에 걸린 것일까요?
- ② 骨凡有疾。(合 13921)
몸살감기를 앓을까요?
- ③ 庚子卜 爭貞: 王風 其遇之日 風遇雨, 五月。(合 5349)
경자일에 점을 치고 爭이 묻습니다: 왕이 감기에 걸렸는데 비바람에 의한 것일까요? 오월에.

‘禍風’, ‘禍風有病’은 복사에 자주 보이는 질환이다. 지금의 감기증상이다. 한의학에서 “風爲百病之長, 風善行而數變²⁹⁾”로 ‘寒’과 ‘熱’은 모두 ‘傷風’과 관련이 있다. 또한 ‘傷風感冒’ 감기는 전염이 쉽다. 이 복사로 알 수 있듯 은상대인들은 감기에 대해 대단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骨凡有疾’의 갑골문 ‘風’은 ‘凡’의 통가자이며 ‘風’의 최초 글자는 ‘凡’자를 빌린 것으로 ‘骨風有疾’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추위에 바람을 맞아 몸살감기를 앓는 것을 말한다. 楊樹達은 ‘凡’은 당연히 ‘風’으로 읽으며《黃帝內經·素問》에서 ‘風’은 ‘百病之長’으

27) 양동숙, 《갑골문과 옛문화》 2009, 142쪽.

28) 張 杰, 〈試論殷人對疾病及其治療的認識〉 2002, 33쪽.

29) “風은 백병의 우두머리이며 잘 돌아다니며 수시로 변한다.”

로 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風’은 감기를 말하며, ‘骨凡有疾’은 ‘骨風有疾’이다.³⁰⁾ ③의 ‘五月’은 지금의 음력 10월에 해당³¹⁾하는 것으로 마침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여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라 볼 수 있다.

20) 회충(기생충)

① 貞：王禍，唯蠱。

貞：王禍，不唯蠱。(合 201正)

문습니다：왕에게 재앙이 내려져 기생충이 생긴 걸까요?

문습니다：왕에게 재앙이 내려져 기생충이 생기지 않을까요?

② 有疾不蠱。(合 13796)

병이 생겼는데 회충이 아닐까요?

‘蠱’자의 갑골문은 으로 그릇 속에 벌레가 담겨져 있는 모양이다.《說文》에 “蠱，腹中長虫”이라 하여, ‘蠱’자는 뱃속의 기생충을 말한다.³²⁾

21) 소아병

① 婦來子疾，不死。(鐵 168.1)

婦來의 子에게 병이 생겼는데 죽지 않을까요?

② 婦肉子疾，不延。(乙 8896)

婦肉의 子에게 병이 생겼는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③ 乙丑卜，貞：婦爵多子亡疾。(合 22323)

을축일에 점을 치고 문습니다：婦爵의 子에게 병이 생겼는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④ 婦娣子疾，不延。(合 22246)

婦娣의 子에게 병이 생겼는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30) 高 飛, 〈殷墟甲骨刻辭中的骨傷疾病〉, 《中醫正骨》2004, 45쪽.

宋鎮豪, 《夏商社會生活史》2001, 422쪽.

31) 馮 時, 《古文字与古史新論》1996, 105쪽.

32) 于省吾, 《甲骨文字沽林》1996, 3冊, 2651편.

宋鎮豪, 《夏商社會生活史》2001, 420쪽.

갑골문 ‘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작위, 관명, 혹은 ‘王子’들을 가리키며 자녀를 일컫기도 한다. 갑골문 중에 소아의 질병은 ‘子疾’이라 한다. 은상대인들은 왕자가 성장하면 ‘子某子某’처럼 이름 앞에 ‘子’를 붙여 부르고 성장하기전의 어린 왕자는 본 복사처럼 어머니 이름인 ‘妣’뒤에 ‘子’를 붙여 구별하였다.³³⁾

22) 알코올중독

- ① 甲子卜, 賓貞: 畢酒才疾, 不從王古, 貞: 其從王古。(合 9560)
 甲子일에 점을 치고 賓이 묻습니다: 畢이 과음으로 인해 병이 생겼는데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까요? 묻습니다: 왕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 ② 乙卯.....卒疾延。(合 13736)
 을묘일..... 卒이 과음으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오래갈까요?

은상대인들은 술을 무척 즐겼다. 그래서 폭음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 이 복사는 알코올중독증과 같다. 왕의 출정에 있어서 ‘畢’이라는 사람이 왕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이다. 병상태가 가볍지 않고 알코올 중독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殷商代 질병의 치료

1) 질병의 원인

(1) 천신 및 조상 숭배

은상대인들은 질병 발병의 원인을 上帝 혹은 조상이 내린 재앙이라고 여겼다.

33) 양동숙, 《갑골문과 옛 문화》 2009, 141-142쪽.

- ① 貞：唯帝肇王疾，不唯上下肇王疾。(合 14222)

문습니다：상제께서 왕에게 병이 생기게 했을까요? 아니면 천상지의 신령들이 왕에게 병을 생기게 한 것은 아닐까요?

- ② 貞：王疾身惟妣己害。(合 822)

문습니다：왕에게 병이 생겼는데 妣己가 재앙을 내린 걸까요?

(2) 음식 부주의

부패되거나 상한 음식물들에 의해 발병한 경우 모두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상대인들은 벌레가 있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긴다고 인식하였으며, 기생충으로 인하여 재앙까지 생길 수 있다고 여겼다.

- ① 有疾其蠱。(合 13796)

병이 생겼는데 벌레 때문일까요?

- ② 己未卜, 殷貞：王夢蠱，唯_四。(合 1027正)

기미일에 점을 치고 殷이 문습니다：왕이 꿈에서 기생충을 보았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3) 악몽

- ① 多鬼夢，有疾見。(合 17448)

꿈에서 많은 귀신들을 보았는데 병이 생길까요?

은상대인들은 꿈을 불길하게 여겼고, 꿈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믿었다. 특히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불길한 징조의 암시라 생각했다.

(4) 기후변화

《黃帝內經》에는 모든 병이 燥濕, 寒暑, 風雨, 陰陽, 喜怒, 飲食, 居處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³⁴⁾ 자연계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風 寒, 暑, 濕, 燥,

火는 삼라만상과 인간의 생장조건이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을 때 인체의 正氣가 부족하다든지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으면 질병 인소가 체내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내과 질병의 원인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은상대인들은 위의 4가지에 원인을 두었다. 갑자기 변하는 날씨 및 음식 부주의 이외의, 조상 숭배 및 악몽 등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소로 야기 되는 병으로 은상대인들은 그래서 점을 쳐 조상신에게 보우 받기를 원했다.³⁵⁾

2) 질병의 치료 방법

(1) 제사 치료

은상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상제나 조상이 내린 재앙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를 올려 해결하려고 하였다.

- ① 貞：唯帝肇王疾。(合 14222 正丙)
문습니다：상제께서 왕에게 병을 생기게 한 걸까요?
- ② ……不唯下上肇王疾。(乙 8069)
지상 모든 신령들께서 왕에게 병을 생기게 하지 않을까요?
- ③ 貞：疾，唯父乙害。(乙 3402)
문습니다：병이 생겼는데 父乙의 재앙이 있을까요?
- ④ 貞：告疾于祖丁。(前 1.12.5)
문습니다：병이 생겼는데 祖丁에게 告祭를 올려야 할까요?
- ⑤ 庚戌卜，聯耳鳴，侑御于祖庚，羊百，又用五十八。(乙 5405)
경술일에 점을칩니다. 왕에게 이명증이 있는데 양 158마리를 올려 祖庚에게 御祭를 드릴까요?

①의 '肇疾'은 병을 야기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는 제사중 병의 상태를 알려 가호를 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의 '御祭'는 자주 보이는 복사로 질병의

34) 주춘재, 《皇帝內徑·靈樞》2004, 114쪽.

35) 蘭 敏, 〈卜辭中的醫學檔案〉, 《檔案管理》2008, 84쪽.

재앙을 물리치고자 올리는 제사이다. 商王에게 이명증이 있었기 때문에 선왕 庚에게 158마리의 양을 희생시켜 제물로 받침으로서 질병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2) 醫官 치료

갑골복사에 의하면 商代 왕실에는 이미 ‘小疾臣’ ‘舊老疾臣’이라는 전문 주치의가 있었다.

① 王疾, 夕告小臣, 若。(合 5583)

왕에게 병이 생겼는데 저녁에 小臣에게 알리면 순리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② 己巳卜 貞貞 : 王夢王 不佳循小疾臣。(合 5598)

기사일에 점을 치고 貞이 묻습니다 : 왕께서 꿈에 옥을 보았는데, 담당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까요?

③ 貞 : 我家舊老疾臣亡害我。(合 3522)

묻습니다 : 우리 집에 있는 舊老疾臣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까요?

이처럼 卜辭에 보이는 ‘小疾臣’ ‘舊老疾臣’은 중국 최초의 의관이라 할 수 있다.

(3) 巫術 치료

① 其用巫, 求祖戊若。(合 35607)

巫術을 행하여 祖戊에게 求祭를 드리면 나올 수 있을까요?

② 丙申卜, 巫御, 不御(合 5651)

병신일에 점을 집니다, 巫에게 御祭를 드리게 할까요? 드리지 말게 할까요?

‘巫醫’들은 주로 ‘巫術’을 통해 환자들에게 심리요법 치료를 시행했으며, 本草나 기타 보조요법을 쓰기도 하였다. ‘巫術’을 통한 의료가 행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귀신의 존재 혹은 上帝가 병을 내린다는 등의 믿음이 깔

려 있었으며, 그 치료방식도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4) 침 치료

①其殷,殷。(合 17979)

침으로 치료할까요?

병을 치료했던 가장 오래된 의료 기구는 돌 침이라 할 수 있다. 갑골문의 殷(𠂔)자 형상은 손으로 침 모양을 한 날카로운 것을 집고 배를 찌르는 형상이다.³⁶⁾ 이런 갑골자형은 고대인들이 이미 침으로 의료 활동을 했음을 시사한다. 뽕죽하고 날카로운 석판을 갈거나 잘라서 신체의 어느 부위를 살짝 찔러 병을 치료하였으며,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후세에는 골침, 죽침, 금속 침 등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다.³⁷⁾ 《說文》: “砭, 以石刺病也”라 하였다.

1973년 하북성 省藁城縣 台西에서 商代 유적 14호중에 길이 20cm 정도의 등이 구부러진 砭簪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당시 옷칠을 한 네모난 상자에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은상대인들이 혈 자리에 침을 놓는 기술을 이미 터득했는지의 여부는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발견된 돌 침으로 보건데, 그들은 이미 돌 침으로 아픈 곳을 찌르거나 혹은 그것으로 종기를 찌서 치료했던 방법을 사용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5) 쑥뜸 치료

① 取艾妹。(甲 2287)

쑥뜸으로 치료하는 妹를 데려올까요?

② 巫妹艾子。(拾 470)

巫醫 妹는 子에게 쑥뜸 치료를 할까요?

36) 于省吾, 《甲骨文字沽林》 1996, 321-322쪽.

胡厚宣, 胡振宇, 《殷商史》 2003, 308-313쪽.

37) 양동숙, 《갑골문과 옛 문화》 2009, 153-154쪽.

③ 有艾, 今夕。(京 2458)

오늘 저녁에 쑥뜸으로 치료 할까요?

갑골문에는 은상시대에 이미 쑥뜸으로 의료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자가 있다. 갑골문 ‘艾’자 양손으로 쑥을 자르는 모양으로³⁸⁾ ‘艾灸’의 의미를 담고 있다.

(6) 안마 치료

의학발전의 역사로 보건데 안마요법은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의료방법중의 하나 일 것이다. 중국 은상시대의 안마치료법은 흔히 시행되었던 치료 방법이다.

① 貞：拊龍。(乙 2340)

문습니다：안마를 하면 치유될까요?

② 甲申卜，爭貞：尹弗其氏拊子。(前 7,43,1)

갑신일에 점을 치고 쟁이 묻습니다：尹이子에게 안마를 시행하지 말까요?

③ 庚子卜，𠂔貞：拊不死。(合 3942)

경자일에 점을 치고 𠂔이 묻습니다：안마를 시행하면 죽지 않을까요?

‘疔’(𠂔)은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의 배를 어루만져 주는 모습이다.³⁹⁾ 갑골문 ‘付’자는 ‘拊’의 초문이다.《說文》: “拊, 循也, ”循, 摩也“라 하였다.

상술하였듯이, ‘疔’는 아랫배의 통증 혹은 심장과 배(요충)의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안마술로 배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상대인들이 이미 안마치료법에 의존하였다는 기록을 보여준다.

(7) 약물 치료

전설에 의하면 신농이 백가지 풀의 맛을 보고 약재료를 발견하여 병을 치료해

38) 양동숙, 《갑골문해독》 2005, 893쪽.

39) 胡厚宣, 《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 《中原文物》 1984, 4기, 29-30쪽.

사람을 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이미 질병 치료법에 대해 인식했으며 은상시기에 이르러 더욱더 발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3년 河北藁城 台西의 商代유적에서 ‘桃仁’ ‘杏仁’ ‘郁李仁’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桃仁’이 가장 많았다.⁴⁰⁾ 이러한 유물의 외형은 비교적 잘 보존 되어 있었으며 모두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저장되어왔다. ‘桃仁’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하고, 적게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혈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⁴¹⁾ 아마도 이러한 씨와 먹을 것들은 출토 가능성이 매우 적어 약용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된다. 은상대인들은 아마도 이러한 처방전을 미리 인식하여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은상대에 이미 음식물로도 병을 치료하였다는 단서가 출현 하였다.

① 丙戌卜, 貞: 疢, 用魚。(庫1212)

병술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배에 병이 생겼는데 물고기를 복용할까요?

② 甲戌卜, 貞: 有瘧, 秉棗。(明 105)

갑술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 학질에 걸렸는데 대추를 복용할까요?

고대인들은 어류사냥으로 배불리 먹는 것 이외에 물고기가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①의 ‘魚’는 한방에서 ‘行水’의 성분⁴²⁾이 있어, 어혈을 풀어준다고 한다.⁴³⁾

(8) 발치 치료

① 甲子卜, 殼貞: 王疾齒, 唯易。(前 4.4.1)

갑자일에 점을 치고 殼이 묻습니다 : 왕께서 이를 뽑으면 괜찮을까

40) 許進雄, 《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1995, 501쪽.

41) 신천호, 《본초학》2001, 338쪽.

42) 氣를 잘 돌게 하고 수도(水道: 인체 내에서 물성분이 대사되는 통로)를 통하게 하는 약으로 수습(水濕)을 내보내는 치료방법.

43) 정지천, 《우리 집 음식 동의보감》2010, 214쪽.

요?

② 貞：其有執齒，若。(通 III7)

문습니다 : 실로 이를 뽑으면 나올까요?

은상대인들은 ‘疾齒’가 생긴 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치료방법은 바로 발치였다. ①의 ‘易’은 “이를 뽑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⁴⁴⁾ ②의 ‘執齒’는 즉 ‘繫齒’의 뜻으로 병이 난 치아를 실로 뽑아내는 것을 말한다.

(9) 접골 치료

① 王肘唯有害，呼糾肘。(合 211)

왕의 팔꿈치에 병이 생겼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팔을 동여매 고정 시킬까요?

왕의 팔꿈치관절에 탈골 혹은 뼈에 문제가 생겨 재앙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糾肘’는 ‘正骨法’을 사용하여 탈골된 부위의 팔꿈치 관절부위를 교정하여 동여매는 방법이다. 즉 이것이 전통적 ‘正骨法’⁴⁵⁾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중국 고대 은상대인들이 어떠한 질병을 앓았고, 그들이 질병에서 오는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조치를 시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로서 당시의 의료 문화적 특색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질병의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의료는 반드시 필요했다. 3천여 년 전 은상시대에 실존했던 그들

44) ‘易’는 “바꾸다”라는 의미로 “치아를 바꾸다” 즉 “이를 뽑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양동숙, 《갑골문과 옛문화》 2009, 34쪽.

45) 골격계를 바로 잡아주는 방법.

이 직접 점을 치고 기록한 문서인 갑골문을 통하여 은상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로 인한 의료 문화적 특색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은상시대 사람들은 질병을 증세나 병증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며 이미 醫官과 巫醫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왕실 가족을 비롯한 그 자제 및 신하의 질병을 치료하였다. 약물치료, 음식치료, 침술, 안마술, 뜸, 발치 술, 접골 술, 제사 등 다양한 치료법의 발명과 운용은 은상대의 의료문화 수준이 현시대의 의학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들은 오랜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고, 전쟁 중 포로를 죽이거나 혹은 노예를 학살하거나 혹은 제사에 사람을 희생으로 삼으면서 점차적으로 인체의 해부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채집활동 등을 통하여 약간의 약초를 분별하게 됨으로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물리 요법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처럼 은상대인들은 질병 요인에 대한 인식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질병 치료의 방법과 건강위생방면의 사회 풍속은 무수한 성공과 실패 경험의 축적을 수반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입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생활에 있어서 문명의 발전이며 또한 동시에 후세의 의학 체계를 위하여 완전한 기초를 다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陳夢家, 〈商代的神話與巫術〉, 《燕京學報》第20期 1935.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初集》臺灣：大通書局, 1944.
 嚴一萍, 《殷契徵瑩》上冊, 線裝本, 1951.
 郭沫若, 《甲骨文字研究》北京：圖書館出版社, 1952.
 饒宗頤, 《巴黎所見甲骨錄》, 中華書局, 1956.
 李孝定, 《甲骨文字集釋》中央研究院 史語言研究所, 1991.
 李捷民외, 〈河北藁城縣台西村商代遺址1973年的重要發現〉《文物》第8期, 1974년.
 孟世凱, 《殷墟甲骨文簡述》文物出版社, 1980.
 聞一多, 《釋觚》, 《聞一多全集》第2冊, 1982.

- 溫少峰,袁庭棟,《殷墟卜辭研究-科學技術篇》四川：社會科學出版社,1983.
- 胡厚宣,〈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中原文物》1984年 4期
- 徐錫台,〈殷墟出土的一些病類卜辭考釋〉,《殷都學刊》1985.
- 이시진,《圖解 本草綱目》고문사, 1987.
- 姚孝遂,《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中華書局, 1988.
- 孫叔微,〈甲骨卜辭에 나타난 殷商代 祭祀의 種類〉《中國學報》28卷 1988.
- 傅維康,《黃帝內經導讀》巴蜀書社, 1988.
- 陳夢家,《殷墟卜辭綜述》北京：中華書局, 1988.
- 張光直,〈商代的巫與巫術〉,《中國青銅時代》第2集 北京：三聯書店, 1990.
- 許進雄,《中國古代社會-文字與人類學的透視》台北：臺灣商務印書館, 1995.
- 于省吾,《甲骨文字詁林》,北京：中華書局, 1996.
- 馮 時,《古文字与古史新論》台灣：書房出版有限公司, 1996.
- 王礼賢,〈殷商疾病卜辭——中國醫學史上的医案雛型〉《医古文知識》1997.
- 姚孝遂,《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中華書局, 1998.
- 李宗焜,〈從甲骨文看商代的疾病與醫療〉,《中央研究院歷史語言所集刊》第72本 第2分, 2001.
- 鄒 衡,《夏商周考古學論文集》,科學出版社文物, 2001.
- 曹錦炎、沈建華,《新編甲骨文字形總表》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1.
- 宋鎮豪,《夏商社會生活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張 杰,〈試論殷人對疾病及其治療的認識〉,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2002
- 신천호,《본초학》성보사, 2001.
- 張玉金,〈釋甲骨文中的「御」〉,《古文字研究》第24輯,北京：中華書局, 2002.
- 아마다게이지,《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주)사이언스북스, 2002.
- 胡厚宣,胡振宇,《殷商史》上海人民出版社, 2003.
- 李玉洁,《中國早期國家性質》台北：雲龍出版社, 2003.
- 王 巍,〈中國古代人類的牙齒与牙病〉《口腔正畸學》2004.
- 주춘재,《皇帝內徑·靈樞》청홍출판사, 2004.
- 高 飛,〈殷墟甲骨刻辭中的骨傷疾病〉《中医正骨》2004.
- 양동숙,《갑골문해독》서예문인화, 2005.
- 徐中舒,《甲骨文字典》成都：辭書出版社, 2006.
- 李宗焜,《當甲骨遇上考古—導覽YH127坑》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6.
- 권오현,《중국의학사》대성의학사, 2006.
- 吳東平,《漢字的故事》〈箭射中了人—“疾”、“病”二字趣釋〉2006.

- 蔡哲茂,〈殷卜辭「肩凡有疾」解〉,《屈萬里先生百歲誕辰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臺北:文建會,2006.
- 藺 敏,《檔案管理》〈卜辭中的醫學檔案〉,第4期,2008.
- 彭邦炯,《甲骨文醫學資料釋文考辨與研究》人民出版社,2008.
- 于省吾,《甲骨文字釋林》,北京:中華書局,2009.
- 劉 釗,《古宮博物院院刊》〈釋甲骨文中的‘秉棘’〉,2期,2009.
- 常玉芝,《商代周祭制度》北京:線裝書局出版社,2009.
- 양동숙,《갑골문과 옛 문화》차이나하우스,2009.
- 정지천,《우리집 음식 동의보감》중앙생활사,2010.
- 趙容俊,《殷商甲骨卜辭所見之巫術》中華書局,2011.
- 李 珂,〈殷商甲骨卦辭記載疾病治法考述〉《上海中醫藥雜誌》2011.
- 裴錫圭,《裴錫圭學術文集》復旦大學出版社,2012.

〈中文提要〉

本文考察的是中国殷商时期的医疗情况。即人们得过什么样的疾病,为解决病人的痛苦做了哪些准备并如何解决。本文把研究重点放在当时的医疗文化特色上。不管什么时代,疾病是折磨人们的原因之一。稳定社会安定,医疗是必须的。三千多年前,殷商时期的人们把算卦的结果记录在甲骨文中,从这一点可以看出殷商时期人们对于疾病的认识及疾病带来的医疗文化特色。

殷商时期的人们根据症状和病情把疾病详细分类,已分为医官和巫官并专门为皇室和皇帝看病。当时的药物治疗、饮食疗法、针灸、按摩技术、灸、拔齿术、接骨术、祭礼等多种多样的治疗法的发明中可以看出殷商时代的水平与现代的医学水平相持。

经过漫长的生活他们认知了身体各部位,战争中杀死战俘或杀害奴隶或把人上供祭礼,积累并掌握了人体解剖学的知识。此外,通过采集草药,分辨出草药功能,并掌握了以物理疗法治疗疾病带来的痛苦。

以此可以看出殷商时期人们对于疾病认识已达到了相当高的水平,疾病的治疗方法和健康卫生方面的社会风俗通过无数次的成功和失败达到一定的水准。

以上关于殷商时期医学的发展情况的研究,展示了当时的社会发展和文明水准,也为后人留下宝贵的医学遗产。

關鍵詞：甲骨文, 巫醫, 桃仁, 中醫, 침, 안마, 쪽뜸

이 논문은 2014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